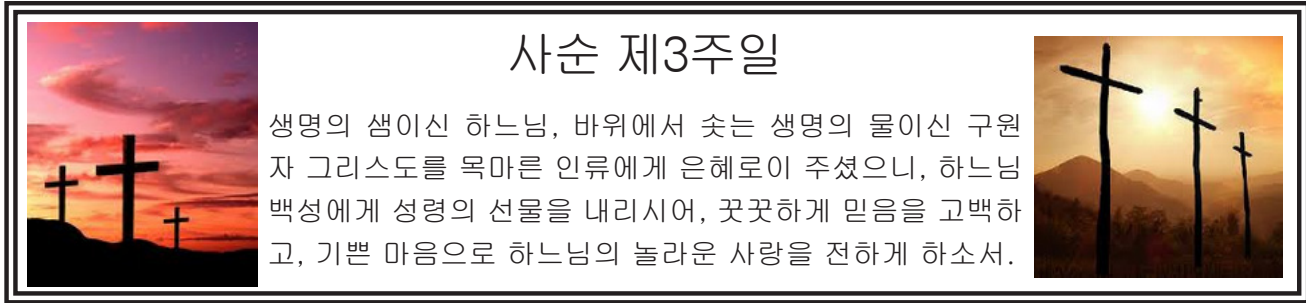


공동체 소식



3월 기도지향

- 안동현(프란치스코), 지은경(리브가) 가정
- 정수한(베드로), 김주연(세실리아) 가정

3월 교황님 기도 지향 : 여성의 권리와 존엄이 모든 문화 속에서 존중받도록 기도합니다.

성 요셉 성월

교회는 해마다 3월을 ‘성 요셉 성월’로 지내고 있습니다. 성 요셉 성월은 성모 마리아의 배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양아버지인 요셉 성인을 특별히 공경하고 그분의 삶을 묵상하는 달입니다. 요셉 성인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신 약혼자 마리아를 주님의 뜻에 따라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하느님의 구원 사업의 협력자로 삶을 바치셨습니다.

사순시기 운동

- 성경 필사 : 시편
- 구역미사 및 판공
- 사순 특강

견진 미사 일정

- 일시 : 3/28(금) 7시
 - 장소 : 홀리트리니티 성당
 - 집전 : 캔사스 대교구 Joseph F. Naumann 대주교님
- 그동안 15명의 형제자매님들이 열심히 견진교리에 입회 주셨습니다. 견진 리허설은 27일(목) 오후 6시 30분에 있습니다.

예비자 집중 교리

- 일시 : 3/23(일) ~4/13(일) 중심미사 후
 - 장소 : 성당
 - 세례식 : 4/19(토) 오후 8시 예정(유아세례 포함)
- 세례 대상자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례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역 회의

- 일시 : 3/23(일) 오후 1시
- 장소 : 회관

기타

- 하절기를 맞아 저녁미사 시간을 7시 30분으로 변경합니다.
- 캔사스 대교구 사순절 운동으로 ‘라이스 볼’을 나누어 드립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123	215	163/180	115

주일미사 복사

	향 복사	시중 복사
금주	이우영(가브리엘)	이원준(요 한)
	안광민(야 고 보)	문예나(요 안 나)
차주	정수한(베 드 로)	정예찬(미 카 엘)
	차호섭(요 셉)	차서은(세라피나)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박혜정(카타리나)	김태중(예레미아) 김시연(엘리사벳)
차주	김주연(세실리아)	홍순익(마르티노) 최은미(아 네 스)

애찬 봉사자

금주	박혜정, 김정돌, 김재은, 윤유나, 지은경
차주	최선윤, 김수연, 서정애, 정선식

헌금 봉사자

금주	김시연(엘리사벳), 백문주(엘리사벳)
차주	문석찬(요 셉), 최은미(아 네 스)

우리들의 정성

	참례인원	헌금	교무금
3/16	87명	462불	1,130불
김화년, 김호원, 박성기, 주영길, 김창식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0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한인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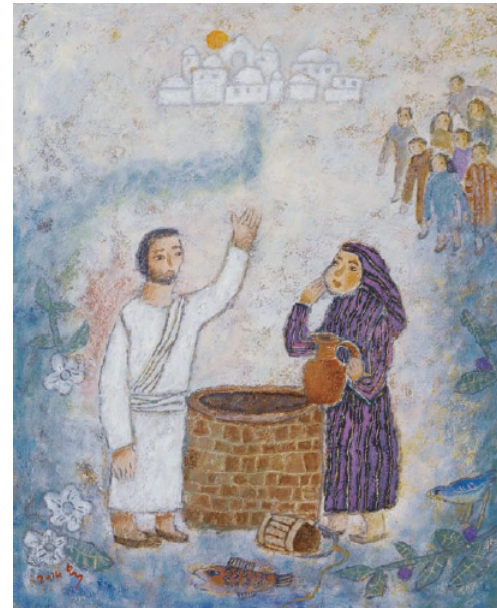
주보 편집 : 김원철 바실리오 412.576.5075 willkim777@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M: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회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실 물을 청하시면서 그녀를 대화로 초대하십니다. 그 대화는 영원하고 참된 생명의 물에 대한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이 깨달음은 그녀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사순 시기는 주님께서 건네시는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고 뜻을 새기는 때입니다. 깊어 가는 사순 시기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건네시는 사랑의 대화에 더욱더 깊이 젖을 수 있도록 이 미사에서 열린 마음을 청합니다.

성화해설

야곱의 우물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요한 4,14)

이방인의 여인이 구세주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영원히 샘솟는 물을 주기 위해 먼 길을 달려 오셨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 죄를 씻어주는 생수이고, 끊임없이 샘솟는 하느님의 은총이며 성령입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로말수도회

제 1 독 서 : 탈출 17,3-7 < 우리가 마실 물을 내놓으시오(탈출 17,2). >



◎ 주님의 목소리를 오늘 듣게 되거든 너의 마음을 무디게 가지지 말라

○ 어서 와 하느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목청 돋우세. 송가를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세. 노랫가락 드높이 주님을 부르세. ◎

○ 어서 와 앞드려서 조배 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세. 당신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네. 우리는 그 목장의 백성이로세. ◎

○ 주님의 목소리를 오늘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무디게 말라. 너희 조상이 나를 시험하고, 내 일을 보고도 시험하려 했네 ◎

제 2 독 서 : 로마 5,1-2.5-8 <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

복음환호송 :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주님, 당신은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시니, 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을 주소서. ◎

복 음 : 요한 4,5-42 <또는 4,5-15.19-26.39-40-42> < 솟아오르는 영원한 생명의 샘물 >

☆쉐 마

“우물가로 갑시다”



관공성사표를 받았습니다.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 사순시기 동안 우리는 희생, 극기, 봉사의 보속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죄를 하느님께 고하고, 용서와 평화를 청하고 얻게 됩니다.

관공성사표를 들고, 고해소로 향합니다. 이 시기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 한 명씩 고해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옵니다. 고해소로 들어가던 뒷모습과 나올 때의 얼굴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고해소를 들어가는 뒷모습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발걸음은 터벅터벅이고, 문고리를 잡는 손은 주춤거리고, 미적거립니다. 들어가기가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나올 때의 모습들은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눈가가 축축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휴지로 눈물을 닦고 코를 풀며 나오기도 합니다. 또 용서와 평화를 담은 얼굴을 하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 작은 고해소 안에서, 그 길지 않은 시간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고해소 안에서, 고해성사 안에서 어떤 체험을 한 것일까요?

오늘 복음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한낮에 물동이를 이고, 터벅터벅 우물가로 나온 여인은 낮선 유대인 남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여인은 물동이라도 버려두고 고을로 내려가 사람들에게 신나게 떠들어댑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한낮에 우물가에 나왔던 여인이 사람들 한복판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일지도 모르는 사람을 만났다고 외칩니다. 네, 그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생수를 주실 분을 만났습니다. 여인은 이 기쁨으로 몸과 마음이 넘쳐났습니다. 우리가 고해소에서 체험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넘쳐나는 기쁨.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용서와 평화, 위로의 선물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자신의 지나온 삶을 이야기 합니다. 얼마나 어렵게 살아왔는지를, 지금도 녹록치 않은 자신의 삶을 예수님 앞에 그대로 드러냅니다. 물 한 잔을 가지고 예수님께서서는 한 여인의 인생 전체를 끄집어 내십니다. 그녀의 아픈 과거를 들어주시고,

마침내 그녀가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어둠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가지 못하고 숨었던 그녀가 스스로 사람들에게 갑니다. 자신의 존재, 소중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물가에서 그녀를 도와주십니다. 고해소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신부님들을 보내셨습니다. 죄를 듣는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제들을 도와주십니다. 당신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죄와 어두웠던 과거를 듣고 용서와 평화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고해소의 사제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물 한 잔을 청하기 위해 사제들은 고해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해소가 얼마나 좁은 공간입니까! 하지만 고해소는 좁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생이 나눠지는 고해소는 어떤 벌판보다도 더 넓고, 어떤 바다보다도 더 깊습니다. 삶을 받아들이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고해소를 하느님께서 주관하시기에 그곳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도 괜찮은 곳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것이 하느님께 들어가고, 또 하느님께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고해소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아픔, 상처, 낙담, 불완전함, 두려움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당신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화, 용서를 주십니다. 사순시기 동안 우리는 터벅터벅 고해소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을 온 몸으로 느끼며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사순시기가 끝나갈 무렵에는 관공성사를 보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물가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립니다. 신부님들께 우리의 상처난 마음과 찢긴 과거를 천천히 들어줄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사순 제3주일입니다. 아직 우물가에 사람들이 없을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는 우물가로 이번 사순에는 조금 일찍 나가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 예수회 김동일 신부 -

☆마중물

가장 행복한 순간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A.Toscanini)는 흑인 가수 마리안 앤더슨(M. Anderson, 1897~1993)을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한 가수’라고 극찬한 바 있습니다. 마리안 앤더슨은 세계 최고의 알토 가수였습니다.

그녀는 1993년에 9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 하느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녀는 당대 최고의 성악가였지만 정상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가로막는 가난과 엄청난 인종적 차별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다니던 교회 성가대에서 모아준 돈으로 처음 성악 개인교습을 받아 1939년에는 성악가로서의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피부색 때문에 워싱턴D.C.에 있는 컨스티튜션 홀에서 노래를 부를 수 없었습니다. 시민들은

그러한 규제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링컨 기념관에서 마리안 앤더슨의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7만 5천 명이나 되는 인파들이 모여들어 열광하며 그녀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한 번은 오페라 공연이 끝난 후 기자가 앤더슨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앤더슨은 공연이 끝나고 관객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면 곧잘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기자는 그러한 순간이 그녀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는 대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앤더슨은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집으로 달려가 ‘어머니! 이제 더 이상 남의 빨래를 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하고 부둥켜안고 어머니의 거칠어진 손등을 비벼 드릴 때였습니다.”

☆‘신앙의 해’교육자료

제 9절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나이다.



92. 교회는 왜 하나입니까?

교회는 그 기원상 하나입니다. “이 신비의 최고 표본과 최고 원리는 삼위의 일치, 곧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는 한 분이신 하느님의 일치이다.”(일치교령, 2항).

교회는 그 설립자로 보아 하나입니다. “강생하신 성자께서는 평화의 임금님으로서 당신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하느님과 화해시키시고 한 백성, 한 몸 안에서 모든 사람의 일치를 회복시키셨기 때문이다”(사목현장, 78항).

교회는 그 ‘영혼’으로 하나입니다. “믿는 이들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께서는 온 교회를 가득 채우시고 다스리시어 신자들의 저 놀라운 친교를 이루시고 모든 이를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결합시키시어, 교회 일치와 원리가 되신다”(일치교령, 2항). 그러므로 교회는 본질상 하나입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813항 참조).

이 일치의 끈은 무엇보다도 “완전하게 묶어 주는”(콜로 3,14) 사랑입니다. 그러나 순례하는 교회의 일치에는 또한 다음과 같은 가시적인 친교의 끈들로 보장됩니다.

- 사도들로부터 이어받은 한 신앙에 대한 고백,
- 하느님께 대한 예배의 공동 거행, 특히 성사의 공동 거행,
- 하느님 가족의 형제적 화목을 유지해 주는 성품성사를 통한 사도적 계승(일치교령 3항).

- 『저는 믿나이다』, 청주교구 복음화 연구소, 2012 -